



2010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

문화포장에 이충원 선문사 대표 영예 대통령상엔 박제덕, 국무총리상엔 김종호 사장

대한인쇄문화협회 · 인쇄연합회 · 서울인쇄정보조합 · 인쇄기술협회 공동주최



2010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이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임영호 국회의원,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전용진 한국잡지협회 회장, 김종규 박물관협회 명예회장, 최창근 인쇄연합회 전 회장, 허철중 대한인쇄문화협회 전회장,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 명예회장, 박희준 대구경북인쇄조합 이사장, 노길용 부산인쇄정보조합 이사장, 심응선 인천인쇄정보조합 이사장, 강규진 제주인쇄정보조합 이사장, 고수곤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김충진 한국이앤엑스 대표 등 귀빈 및 전현직 단체장, 이충원 선문사 대표 등 정부포상 및 인쇄문화대상 수상자, 인쇄 및 관련업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성석),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김진배)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이충원 선문사 대표가 문화포장, 박제덕 (주)삼원프린테크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 김종호 경남인쇄사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 이종호 명신인쇄(주)대표이사, 모종근 대광그래픽스 대표, 박도규 대보사 대표, 박상갑 삼영문화인쇄사 대표, 송춘식 세계문화(주) 대표이사, 윤홍열 정우인쇄사 대표, 이의준 유일인쇄사 대표, 이재수 일진PMS(주) 부사장, 이진 (주)양지사 대표이사, 임형택 경일종합인쇄 대표, 전태완 완산정판사 대표, 주백 완유인쇄사 대표, 지규훈 (주)선명제본 대표이사, 오진초 우진커뮤니케이션 대표, 강용석 (주)삼보아트 대표이사, 김종찬 충청북도 청주시 지방행정주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류정열 유신당씨앤씨(주) 대표이사가 인쇄문화대상 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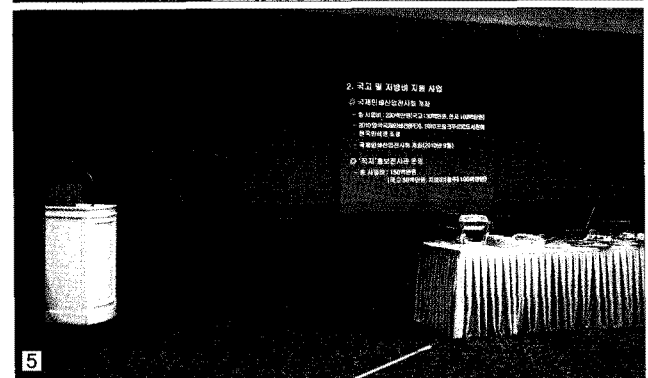
1. 인쇄문화의날 행사후 오찬을 즐기고 있는 인쇄인들
2. 축사를 하고 있는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3. 박선규 차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장
4. 건배를 제의하고 있는 조정석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사장과 귀빈들
5. 인쇄업계 현황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부문, 전익성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주) 대표이사가 인쇄문화대상 진흥부문, 이원재 동양잉크 기술연구소 소장이 인쇄문화대상 기술부문, 이학래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가 인쇄문화대상 특별부문, 김동국 한국하이델베르크(주) 부품부 부장 등 12명이 대한인쇄문화협회장 상을 각각 수상했다. 하재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사무관과 장현익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주무관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이날 행사는 개식이 이어 귀빈소개 - 국민의례 - 기념사 - 축사 - 인쇄업계 현황보고 - 정부포상 - 인쇄문화대상 시상 - 자축연(축하떡 절단, 건배제의)순으로 진행됐다.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가동률이 70%에 머물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인쇄문화산업을 지켜 오고 계신 인쇄인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은 “오늘의 현실이 캄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사회 전반에서 인쇄문화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선조들의 빛난 전통에 대한 자긍심을 되살리는 한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과 인쇄업계의 단합으로 우리 업계 발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인쇄시설 현대화 및 경영안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인쇄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세계인쇄문화박물관 건립, 세계인쇄대백과 사전 발간, 인쇄환경인중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선규 차관은 축사를 통해 “어려움을 딛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인쇄인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인쇄업계의 생일인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을 축하드린다”며 “인쇄업



계의 숙원사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인쇄업계의 단합된 노력이야말로 인쇄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우동 회장 기념사 전문



대한인쇄문화협회장 표창 수상자

- 김동국 한국하이텔베르크(주) 부품부 부장
- 김재원 (주)성우에드컴 디자인팀 팀장
- 김철성 팩컴코리아(주) 해외영업부 부장
- 김학선 (주)성신문화인쇄사 영업부 부장
- 서민석 명성칼라 인쇄실 실장
- 안명철 (주)성인문화사 제본사업본부 부장
- 오일학 (주)성진에드컴 출고부장
- 이미숙 은성정밀인쇄(주) 경리부 과장
- 이정임 조광출판인쇄(주) 제본부 기장
- 장길주 (주)성도솔루원 영업고객부문 부장
- 장명현 (주)갑우문화사 제본본부 제판실 반장
- 정병화 (주)성문아이티피 영업부 과장

<감사패>

- 하재열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사무관
- 장현익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주무관

바쁘신 중에도 인쇄문화 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과 제22회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 및 제26회 인쇄문화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주신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님과, 임영호 의원님, 그리고 내외 귀빈 및 인쇄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쇄문화 발전에 헌신하여 영예의 각종 상을 받으실 수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쇄인 여러분!

최근 들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쇄업계는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인쇄업의 가동률이 70.6%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미래가 '깜깜'함을 절감하게 합니다. 인쇄문화산업의 미래가 '깜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기 불황보다도 아직 사회 전반이 인쇄문화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데에 더 큰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서 금속활자를 발명한 사실을 세계가 공인했는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깜깜'합니다. 인쇄종주국이 아닌 중국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을 활자중심으로 꾸며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지만 정작 인쇄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무감각했습니다. 또, 일본과 독일은 한국에서 금속활자를 발명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IT와 디지털기술이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국의 인쇄역사를 찬양하고 있는데도 역시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미래의 디지털산업도 인쇄술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연구나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민의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었지만 인쇄문화산업의 육성책은 아직도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이 이처럼 어렵지만 우리 인쇄인들은 선조들께서 세계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였고 외침과 민족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언제나 다시 일어서는 의지와 지혜를 발휘했던 것처럼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식문화산업의 중심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는 비전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한 중장기 발전 계획과 정부의 지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출 진흥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5월 영국에서 열린 IPEX 전시회에 한국인쇄관을 조성해 24개 인쇄 및 기자재 업

체가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쇄물을 전시, 홍보하여 상당액의 수출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인쇄공용서체 개발과 인쇄전문인력 양성, 한·중·일 인쇄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포럼, 국제인쇄산업전시회, 직지 및 인쇄물 순회전시, 편집교정사 자격제도 연구 사업 등 그야말로 엄청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쇄인 여러분!

대한인쇄문화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내년부터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지원이 대폭적으로 증대되도록 하여 우리 업계 발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쇄문화산업은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위기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 내부나 외부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하고 인쇄가 모든 문화와 수출·첨단산업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 발전하는 업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인쇄시설 현대화 및 경영안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인쇄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세계인쇄문화박물관 건립, 세계인쇄대백과 사전 발간, 인쇄 환경인증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인쇄문화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있으리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인쇄인 여러분!

IT산업의 발전에 따라 일부에서는 종이를 근간으로 하는 인쇄문화산업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는 위기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이소비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종이인쇄물에 대한 효과와 필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인쇄선진국과 같이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보람과 이에 걸맞는 위상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단체장들이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인쇄인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사다망 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예의 정부포상과 인쇄문화대상을 받으실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포상·대통령표창·국문총리상 수상자들 2. 인쇄문화대상 수상자들 3~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자들 5. 협회장 표창 수상자들



문화포장

이충원 선문사 대표

인쇄업계 위상 제고에 이바지

이충원 선문사 대표는 지난 1974년 인쇄업계에 투신한 이래 우수한 디자인과 고품질 인쇄기술로 연간 20여종의 서적을 발행하여 인쇄 및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난 1993년 인쇄업계 최초로 서울시 성동구에 18개 업체가 입주하는 협동화 사업장을 설립하여 집적화를 통한 공동구매와 생산으로 인쇄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인쇄관련학과 고등학생들에게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매년 1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인쇄인력 양성에 기여했다. 아시아태평양인쇄기술포럼에 한국 대표로 매년 참가하고 있으며 2012년 동 포럼의 국내 유치를 성사시켜 국가 위상제고에 기여한 바 있다.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제지업체의 가격담합 저지 운동, 대기업의 인쇄업 진출에 따른 사업조정신청 등 인쇄업계 현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권익 보호에 기여해 왔다.





대통령 표창

박제덕 (주)삼원프린테크 대표이사

원스톱시스템 구축으로 품질고급화에 기여

박제덕 (주)프린테크 대표이사는 1979년 삼원인쇄공사를 설립해 인쇄업계에 입문한 이후 최신설비를 도입, 초등학교 교재 및 지도서 등 연간 50여종의 출판물을 발간해 인쇄문화 발전 및 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생산에서 포장까지 완료하는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인쇄물 생산 환경을 조성하여 품질고급화에 기여했으며 월마트, K-마트, GAP사 등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무총리 표창

김종호 경남인쇄사 대표

농수산물 포장재 고급화 위한 인쇄기술 개발

김종호 경남인쇄사 대표는 지난 1976년 인쇄업계에 몸을 담은 이후 농수산물 포장재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위한 인쇄기술 개발에 진력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연간 20여종의 고품질 인쇄물을 생산하여 인쇄문화발전에도 기여해왔다.

농산물 포장재를 고급화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공헌했다. 현재 농산물상표 및 박스 인쇄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인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양봉협회의 추천으로 서울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이종호 명신인쇄주 대표이사

차세대 전산장표 인쇄기술 개발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이종호 명신인쇄주 대표이사는 1978년 이후 30여 년 동안 인쇄업에 종사하며 차세대 전산장표 인쇄기술을 개발해 금융업계의 온라인 발전에 기여했다. 연간 40여종의 출판물을 제작, 인쇄 및 출판 문화 발전과 인쇄인 인재양성에도 공헌해왔으며 인쇄물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모종근 대광그래픽스 대표

고객맞춤형 인쇄시스템으로 인쇄산업 발전에 공헌

모종근 대광그래픽스 대표는 1988년 인쇄업계에 몸을 담은 이후 선진 인쇄기법 및 설비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인쇄산업 경쟁력 향상에 공헌해 왔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내·외부 데이터 파일 전송시스템 및 출력시스템을 통한 고객맞춤형 인쇄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급인쇄물을 고객에게 공급해 왔다.



박도규 대보사 대표

국내 첫 족보 정보화 구현에 기여

박도규 대보사 대표는 1976년 인쇄산업에 투신한 이후, 1981년 족보문집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대보사를 창립하고 국내 족보 정보화 구현에 기여해 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청타조판을 이용하여 족보편집에 도입하였으며 1989년에는 컴퓨터 족보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08년에는 E-jokbo 시스템을 출시했다. 1998년에는 족보도서관을 개관해 기술개발의 혁신에 크게 기여했다.



박상갑 삼영문화인쇄사 대표

디자인 및 컬러박스 제조로 인쇄기술 향상에 성과

박상갑 삼영문화인쇄사 대표는 1976년부터 인쇄업에 종사하면서 디자인 및 컬러박스 제조를 인쇄기술과 접목시켜 인쇄업계의 발전 및 인쇄물 수출에 기여했다. 고려은단주와 보령약품주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왔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기업 이미지 제고, 경영 합리화를 실현 모범적인 경영방향을 제시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송 춘 식 세계문화(주) 대표이사

특허 획득 및 고유 디자인 등록으로 인쇄기술 발전에 이바지

송춘식 세계문화(주) 대표이사는 1990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적극적 기술 및 시설 투자로 인쇄기술 발전에 기여했다. 실용신안 및 인쇄기술 특허를 다수 획득했으며 고유 디자인 등록으로 매년 50여 종의 고품질 인쇄물을 생산해 왔다. 2007년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한데 이어 2009년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윤 흥 열 정우인쇄사 대표

연간 300여종의 고품질 인쇄물 생산

윤흥열 정우인쇄사 대표는 1970년부터 인쇄업계에 몸담아 오면서 인쇄물 품질의 고급화, 인쇄기술 발전에 기여해왔으며 디지털화로 급변한 인쇄출판 환경에서도 다양한 상품 개발 및 수요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정보산업미디어 책과 전자책을 개발하는 한편으로 연간 300여종의 고품질 인쇄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 의 준 유일인쇄사 대표

공정별 책임자 시스템 구축해 인쇄산업 발전에 기여

이의준 유일인쇄사 대표는 1972년에 인쇄업계에 투신한 이래, 38년여 동안 인쇄업에만 전념해오면서 공정별 품질관리 책임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쇄산업 발전에 이바지 해 왔다. 품질개선팀을 구성, 고품질 인쇄물을 제작하는가 하면 꾸준한 기술개발과 직원교육을 통해 상업인쇄 및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이 재 수 일진PMS(주) 부사장

인쇄학회 등 학술학회 통해 인쇄산업 발전에 기여

이재수 일진PMS(주) 부사장은 1993년 이후 인쇄산업에 종사하면서 학술연구에 꾸준히 정진하면서 인쇄양성 및 국내 인쇄재료 수출을 통해 인쇄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1998년 문화관광부와 대한인쇄연구소가 진행한 '인쇄품질표준화과제'에 관한 연구에 총괄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였으며 1999년에는 산업자원부와 '기능성 한지개발' 연구에서 총괄책임연구원으로 활동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이 진 (주양지사 대표이사)

고품질 다이어리, 인쇄물로 2천만불 수출 달성

이진 (주양지사 대표이사)은 1994년 (주)양지사에 입사한 이래로 기술혁신 및 획기적인 신제품 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첩, 다이어리 공급업체로서 자리를 굳히는 등 인쇄산업과 회사 발전에 기여했다. 생산시설 증설과 공장의 자동화로 1일 20만부 이상을 생산하였으며 해외 주문에 대한 신속한 주문으로 2천만불 수출을 달성했다.



임형택 경일종합인쇄 대표

사무용품 및 책자 인쇄, 보급해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

임형택 경일종합인쇄 대표는 1986년 이후, 실용성과 뛰어난 품질을 갖춘 책자 및 사무용품을 생산, 보급해 왔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출석부 및 다수의 교육행정 장표류를 보급하여 교육계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교육행정에 필요한 우수한 인쇄물을 생산, 보급했다.



전태완 완산정판사 대표

생산 환경 데이터베이스화로 고급 인쇄물 생산에 기여

전태완 완산정판사 대표는 1980년 인쇄업계에 투신한 이래로 고품질 인쇄물의 생산과 인쇄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고품질의 인쇄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도 자연 그대로의 색을 살릴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 개발로 최적의 환경조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한편으로 ISO9001인증을 획득하는 등의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주백 완유인쇄사 대표

섬유 특수인쇄기술 응용해 인쇄산업 경쟁력 강화

주백 완유인쇄사 대표는 1974년 이후 인쇄업에 몸 담으면서 오프셋, 섬유, 특수인쇄 등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미국 및 일본 등 해외수출시장을 개척하고 국내 인쇄기술 발전에 기여했다. 습득한 기술로 각종 팬시제품 및 티셔츠 등을 생산, 일본 및 유럽 등으로 꾸준한 수출실적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지규훈 (주)선명제본 대표이사

독창적 제책방식 개발로 인쇄산업 발전에 기여

지규훈 (주)선명제본 대표이사는 1976년부터 인쇄업체 종사했으며 인쇄 및 제책방식의 연구개발에 앞장서 인쇄 및 출판문화 향상에 많은 공헌을 했다. 1996년 중고등학교 참고서에 '책속의 책(특허 제029950호 취득)'이라는 독창적인 제책방식을 개발했으며 과감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지속해 왔다.



오진초 우진커뮤니케이션 대표

공정별 품질확인 체계화 및 고급 포장재 생산

오진초 우진커뮤니케이션 대표는 1985년부터 포장재 생산을 시작했으며 소핑백, 포장물 등의 생산과 기술 개발에 전념, 내수 및 수출용 우수 인쇄물 생산에 기여했다. 오 대표는 인쇄물의 상품가치 향상을 위해 공정단계별로 인쇄품질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품질점검을 체계화하고 노력한 공로로 지난해에 서울시 모범기업인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강용석 ㈜삼보아트 대표이사

공기름잉크 및 재생용지 사용해 친환경인쇄에 앞장

강용석 ㈜삼보아트 대표이사는 1985년 인쇄업에 뛰어들어 이래 친환경적인 인쇄 실현으로 인쇄 문화 향상에 기여했다. 공기름 잉크와 재생용지를 적극 사용해 환경친화적인 인쇄환경 조성과 인쇄물 고급화에 공헌했으며 정기적인 업무개선회의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김종찬 충청북도 청주시 지방행정주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직지' 홍보 활동 전개

김종찬 충청북도 청주시 지방행정주사는 1976년 공직에 발을 디딘 이후,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공직자 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직지사업과에 부임한 이래로 직지 및 고인쇄 국내 홍보전 업무, 직지 홍보물 제작 관리 업무, 직지 시설물 관리(홍보시설) 업무, 직지 홍보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해 오면서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의 세계화와 해마다 10여 차례 이상 국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열리는 직지 홍보전을 통해 한국의 고인쇄문화를 알리고 문화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